

# 전북교육청, 수석교사 17명 선발

### 내달 7~8일 접수... 내년 3월부터 4년간 활동

전북교육청이 도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활동할 수석교사를 모집한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엔 선발하는 수석교사는 유치원 1명·초등 2명·중등 14명 등 총 17명이다. 중등의 경우 수석교사 결원 교과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으로, 우선 선발 교과는 일반사회·지리·생물·기술가정·체육·특수 등 6개 교과다.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7~8일로 수석교사를 희망하거나 추천된 교원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업무

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1차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면담, 2차 역량평가를 거쳐 11월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임용일 기준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로 도내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 징계 의결

요구중이거나 교원의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외 징계처분 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선발된 수석교사들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년간 각급 학교에 배치돼 동료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돕고 수업방법 개선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임용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가 '2018 도전! 드림 전북투자벤처로드쇼'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 전주대, 창업기업 육성 성과 거둬

### '도전! 드림 전북투자벤처로드쇼'서 상 휩쓸어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2018 도전! 드림 전북투자벤처로드쇼'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총 10팀 중 전주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지원 기업 4팀이었다.

이 중 아미빅스 이동민 대표가 '식용곤충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을 기획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위에너지 한운기 대표도 '하이브리드 이동형 태양광 발전소' 사업화로 최우수상을 타바바 진명수 대표도 'LED삽입 스마트 백팩' 아이템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는 사업화 지원금 3천만원, 최우수상·우수상 수

상자도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씩 받게 된다.

대상을 수상한 아미빅스 이동민 대표는 "2016년, 전주대의 창업선도대학 멘토링, 사업화지원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창업에 시작할 수 있었다"라며, "식용곤충은 축산업에 비해 향후 발전가능성 및 시장성이 높아 브라우니, 에너지바 등 시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대 창업지원단 주정아 단장은 "작은 창업기업이 전북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맞춤형 창업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국내 축산업에 해답은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돈육 브랜드 선포식

### 유용 미생물 활용 기술 통해 축산 4대 난제 개선법 제시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은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널리 알리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 네트워크 포럼과 에코 클린 돈육 브랜드 선포식을 내일 진수당 강당에서 연다.

사업단과 미래축산포럼, 두지포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연구한 교수진들의 연구 성과 발표와 이 성과를 활용한 친환경 돈육 브랜드인 '두지포크'의 소개, 미생물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등이 이어진다.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가축의 질병, 약취, 분뇨처리 및 생산성 저하 등 축산 4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축산 기술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용미생물(프로바이오틱스) 활용 기술을 양돈 농가에 적용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자라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 하여 기존 대비 최소 20% 이상의 폐사율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0% 이상의 축사 약취

감소, 3% 이상의 생산성 향상, 2.25%의 농가 소득이 향상된다.

두지포크는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 두지팜 농장에서 키운 돼지로 만든 돈육으로 전북대 산학협력 연구의 주된 결과물이다. 두지팜에서는 사료와 식수, 농장 위생 관리에 항생제 대신 하루 수조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실제 축사 약취와 가축 질병이 줄어들었고, 생산되는 두지포크 돈육의 육질을 분석한 결과 일반 돈육보다 다중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등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고, 부드러운 육질 등이 증명됐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은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국내 축산업에 필요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이 산업에 널리 적용되어 축산 4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이 지난 22일 'LINC+ 마일리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하고 활동 격려 할 것"

### 전주대,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은 지난 22일 'LINC+ 마일리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된 LINC+ 마일리지 장학금은 총 65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전주대 LINC+사업단은 인력양성·현장실습·창업교육 등 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학기 동안 2,58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총 9579.5점이 부여되었으며, 참여율이 꾸준히 늘어 2018년 2차에는 2,200만원의 장학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대 LINC+사업단 주승 단장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일리지 적립과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대학 스스로 장학금을 마련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LINC+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캘리포니아대 장태한 교수 초청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강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일본 원아시아재단(One Asia Foundation, 이사장 사토 요지)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월 7일부터 15주간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장태한 교수가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파차파 캠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태한 교수는 현재 캘리포니아대 소수인종학과 교수로, 미국에서 유일

하게 한국인의 이름을 딴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내 한인과 흑인 문제, LA폭동 전문가로 미국 내 주요 대학 및 해외 유수의 언론사를 통해 한인사회의 입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도산 안창호의 미국에서의 행적을 통해 초기 이주 한인들의 삶을 밝혔다. 특히, 1900년대 가족 중심의 한인 공동체 파차파 캠프를 설명하며, 그 자율성과 질서 유지

사례 등 한인 공동체 우수성을 강의했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서 활동했던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그 활동의 모체가 되었던 파차파 캠프를 처음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좌는 재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063-220-245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변화된 시대, 평화통일교육을 말하다'

###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집담회 개최... 상호 이해 증진 기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원 전문직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변화된 시대, 평화통일교육을 말하다' 집담회를 실시했다.

최근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와 종전, 통일을 실현해 나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담회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통일교육 정책 개발에 반영하고 정책 속의 불통을 해소해 통일교육에 대한 전북 교육주체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내 중·고등학생 40명, 교사 30명, 전문직 20명, 시민단체·학부모

10명이 참여한 △생각나누기:내가 생각하는 '통일', △방향나누기:전북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원탁의 시간:모둠별 통일교육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 나눔, △공유의 시간:교육주체별 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교육교사지원단 교사들과 함께 공동계획을 수립·추진한 이번 집담회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 성과를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교사의 온라인 참여 기회를 제공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화 지향적, 미래 지향적 통일교육, 갈등 해결을 포함한 평화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해발 400~800m 연평균 11.3℃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웁니다!

#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서울로 갑니다!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기간 : 2018. 11. 2(금) ~ 11. 7(수)

장소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창동,고양,성남)

mu u 무주군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추진위원회 Tel:(063)320-2841~2